

# 한국 농식품, 인도네시아를 사로잡다

자카르타지사



1. 2018 자카르타 페어
2. 자카르타 페어 오픈콘서트
3. 인도네시아 식품관

## 동남아 최대 규모

### ‘2018 자카르타 페어(Jakarta Fair)’

- 인도네시아는 지난 5월 23일부터 7월 1일까지 동남아 최대 규모의 소비재박람회인 ‘자카르타 페어(Jakarta Fair)’를 개최했다. 올해로 51회째를 맞이한 이번 자카르타 페어에서는 총 2,700개 업체가 참여해 식품·생활용품·전자제품·자동차·오토바이·수공업품·건강제품 등의 소비재를 홍보하는 판매부스를 운영했다.
- 6백만 명에 육박하는 관람객들이 방문하는 자카르타 페어는 네슬레, KFC 등 세계 유수의 업체들까지 참가하며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각축을 벌이는 장이 되고 있다.
- 매년 5% 이상의 경제성장을 보이는 인도네시아는 최근 중산층을 중심으로 프리미엄 식품시장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. 특히 건강식품과 기능성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품질이 우수한 한국 농식품을 찾는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.

## 한국의 맛과 멋 알린 한국식품관

- aT자카르타지사는 이번 박람회에서 할랄인증 식품을 중심으로 한 ‘K-Halal zone’과 한국의 맛을 상징하는 ‘Red&Hot zone’을 구성·운영하였다.
- 무슬림시장 공략을 위한 ‘K-Halal zone’에서는 할랄인증 김치와 현지에서 인기가 많은 캐릭터 음료 등을, ‘Red&Hot zone’에서는 ‘삼발(Sambal)’과 유사한 고추장과 떡볶이를 전면에 내세워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.

2018 자카르타 페어 aT 한국식품관



- 한국산 농식품 홍보와 함께 한복체험과 쿠킹클래스 등의 문화체험 부대행사를 마련해 소비자들에게 한국의 맛과 멋을 알리는 데에 일조했다. 또한 B2B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수라바야, 마카사르 등 지방 중소도시의 유력 벤더들을 초청해 참가업체와 비즈니스 미팅을 주선하며 수출 플랫폼의 역할을 겸하기도 하였다.

### 인도네시아와 세계를 향한 수출 교두보

- 인도네시아는 우리 농식품 수출대상국 9위의 국가로 2017년의 수출실적은 전년대비 17% 증가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는 등 앞으로도 수출에 역점을 두어야 할 대상이다.
- 해마다 개최되는 이 행사를 통해, 한국 식품기업들이 인도네시아 시장진출에 박차를 가할 뿐만 아니라, 전 세계



에 자사의 제품과 한국 식문화를 알리는 교두보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발빠르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.